

인도

몬순 변수, 단기 변동성 속 구조적 성장 유효

- 6월 이후 누적 강수량이 평년 대비 42% 부족한 가운데, 농업이 GDP의 15%, 고용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농촌 소득 둔화와 식품 물가 상승 가능성
- 남방진동지수(SOI)가 2024년 9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되며 엘니뇨 발생 가능성 확대. 엘니뇨 현실화 시 인도 강수량 감소와 가뭄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농산물 생산 및 물가에 부담 요인
- 국제유가와 몬순 불확실성이 단기 변동성을 높일 수 있으나, 인도의 구조적 성장과 기업 장기 이익 증가 추세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 바론 베버리지와 같은 음료업체 수혜 예상

평년을 하회하는 몬순 강수량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 몬순 시즌이 시작된 6월 1일부터 최근 4주간 누적 강수량은 평년 대비 42%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쌀과 옥수수를 포함한 주요 우기 작물의 작황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도 경제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농업은 여전히 GDP의 약 15%를 차지하고 전체 고용의 40% 이상을 담당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따라서 가뭄 등 기상 여건 악화는 농촌 지역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농촌 소비(인도 전체 소비의 약 50%)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농산물 생산 감소는 식품 물가 상승 압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

아직까지는 몬순 시즌 초입 단계로, 최종 강수량에 대한 판단은 몬순 종료 시점인 9월까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기상청(IMD) 등 주요 기상 기관들은 올해 엘니뇨 발생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어, 강수량이 예년 수준을 하회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엘니뇨 신호 강화

엘니뇨(EI Niño)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엘니뇨가 발생하면 인도와 호주 등에서는 강수량이 감소해 가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미국 남부와 멕시코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증가해 홍수, 폭풍, 폭설 등 이상기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라니냐(La Niña)는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아지는 현상으로, 엘니뇨와 반대되는 기후 영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엘니뇨와 라니냐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남방진동지수(Southern Oscillation Index, SOI)가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남방진동지수가 플러스(+)를 기록하면 라니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엘니뇨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남방진동지수는 지난 4월과 5월 각각 -11.2, -14.5를 기록하며 2024년 9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또한 엘니뇨와 라니냐는 통상 4~5년 주기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향후 수년간 엘니뇨의 영향권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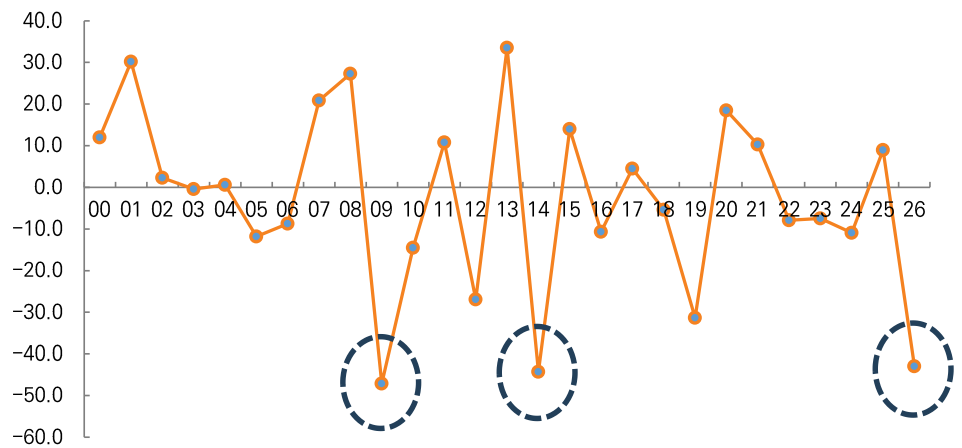
인도: 단기 변동성 지속, 중장기 투자매력 유효

최근 국제유가는 중동 긴장 완화 조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변수에 따른 유가 변동성은 단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평년을 하회하는 강수량은 농산물 가격 상승을 통해 CPI 관리 부담을 높일 수 있다.

반면, 강수량 부족에 따른 고온·건조한 기후는 음료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바른 베 버리지(Varun Beverages, VBL IN, 매수)와 같은 음료 업체에는 긍정적인 영업 환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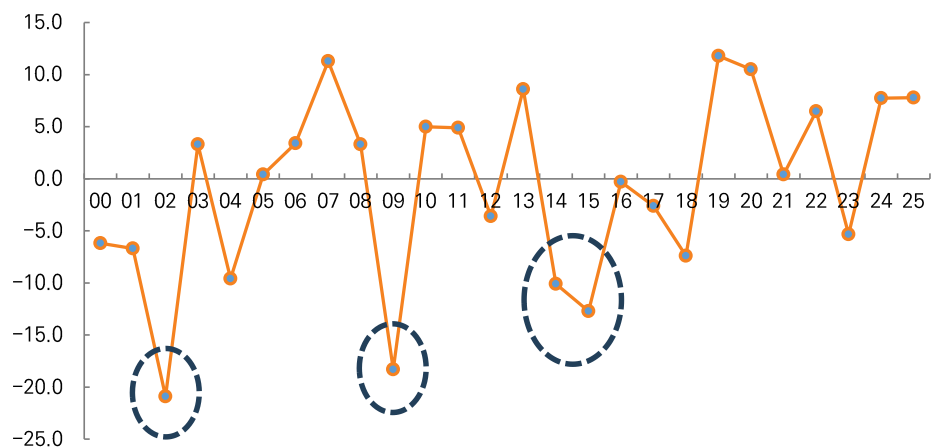
중장기적으로는 인도 경제의 구조적 성장과 기업 이익 증가 추세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인도 비중 확대 전략을 유지한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국제유가와 몬순 강수량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지수의 방향성보다는 소비재 중심의 차별화된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그림 1. 인도 6월 강수량의 장기평균(LPA) 대비 편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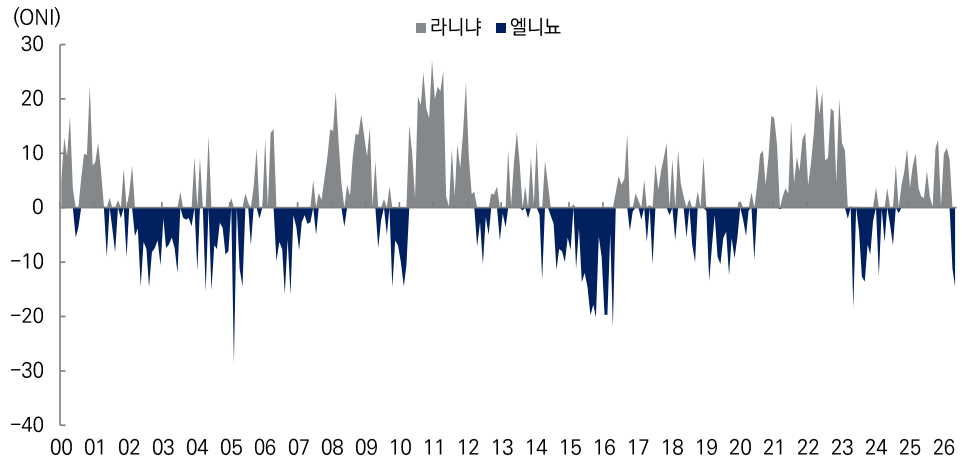
자료: 인도 기상청,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인도 몬순 기간(6~9월) 강수량의 장기평균(LPA) 대비 편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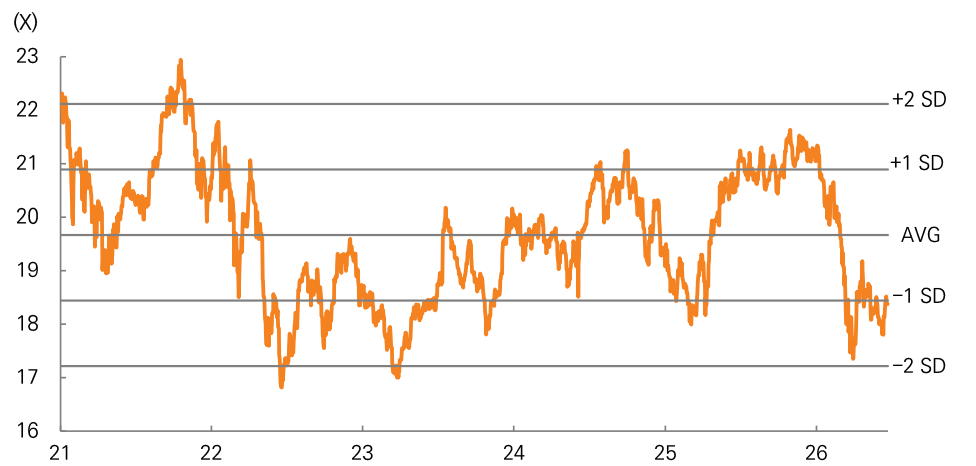
자료: 인도 기상청,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남방 진동 지수(Southern Oscillation Index)에 따른 엘니뇨 vs. 라니냐 추이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Bureau of Meteorology,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Nifty 50 P/E 밴드 차트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해당 회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매매를 권유한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